

광주경제단체 근로자 투표 독려 나섰다

광주경총 6·3 대선 캠페인

보장 않는 고용주 과태료 부과

광주시와 협약 맺고 적극 홍보

광주경제단체가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 보장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고용주들에게 공직선거법상 노동자는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25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21대 대선 캠페인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과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은 대선 투표권 보장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노동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며, 노동자가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특히 노동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시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21대 대선 투표권 보장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가 투표 시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노동자의 투표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 보장은 필수”라면서 “투표가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선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6월 3일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광주 투표소는 357곳으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을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환율 7개월 만에 최저...지난주 원화 절상폭 주요 통화 중 2위

한미 협의·달러 약세에 1360원대 당분간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360원대를 찍으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한 주 만에 2.45% 상승하면서, 유로화·엔화·위안화·대만달러 등 주요 통화 중 두 번째로 강세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관세 협상,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1366.5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6일(1364.5원)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환율은 지난 14일 한미 환율 협의 소식에 1420원대에서 1390.8원까지 순식간에 밀

렸다.

지난 16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21일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 등 충격이 더해지며 지난주 내내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환율은 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지난주 내내 하락했다.

원화는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도 절상 폭이 컸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23일 야간 거래 증가를 기준으로 한 주 새 2.45% 올랐다.

원화보다 더 절상된 통화는 스웨덴 크로나(+2.51%) 정도다.

태국 바트(+2.40%), 호주 달러(+1.44%), 중국 역의 위안(+0.51%), 대만달러(+0.85%) 등 아시아 통화도 강세였으나, 원화만큼은 아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환율협상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는 것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강달러 정책 유지를 공언하며, 약달러를 위한 비밀 통화 협정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통화 절상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주 달러 약세도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3일 장 중 99.042까지 내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우려로 달러 자산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원 FX파생전문위원은 “한미 환율 협상 기대감에 원화 강세 폭이 과한 느낌이라 기존 1370원 하단 전망을 유지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좀 더 아래로 보는 듯하다 하다”면서 “기술적으로 단기 134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aT 상하이 식품박람회 참가

1800만 달러 규모

업무협약·현장계약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9~2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5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18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및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박람회로, 매년 중국 전역의 식품 수입·유통 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전 세계 식품업체들이 방문한다. 올해는 통합한국관을 포함해 45개 국가관이 참가했고, 75개국의 5000여개 기업 및 19만여 명의 방문객이 박람회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78개 부스로 구성된 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각 부스에서는 김치와 인삼, 파프리카 등 신선 식품부터 면류, 스낵, 음료 등 다양한 품목들을 선보였다.

특히 aT는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 상담 성과



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회’를 먼저 진행했다. 또 한국관 시음·시식 홍보와 현지인 마켓테스트를 진행해 참가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전략과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상하이는 중화권

식품 시장 트렌드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박람회 참가는 중화권 시장에서 K-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소기업 장시간근로 10년새 13.6%P 급감

유연근무는 대기업 3분의 1 수준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최근 10년간 크게 줄어든 반면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

는 근로자 비중이 2014년 19.6%에서 작년 6.0%로 10년간 13.6%포인트 급감했다.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6%로 5.1%포인트 줄었다.

반대로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45.6%에서 작년 73.9%로 28.3%포인트 증가했다.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주 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76.7%로 가장 높았고,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5.0%로 가장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작년 기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1~4인 기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5~29인 기업 5.6%, 30~299인 기업 5.2% 순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4.6%)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작년 기준 11.5%로 대기업(36.6%)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은 더 낮아져 1~4인 기업8은 1.4%, 5~29인 기업 9.3%, 30~299인 기업 20.3%를 각각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1년 12.9%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작년 11.5%까지 떨어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초봉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월 420만원 받는 ‘콘크리트기사’

직무 분야로는 광업자원이 최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운데 콘크리트기사의 초임이 월 4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평균임금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작년 7월 말 기준 취업한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다.

고용24에 등록된 채용 공고상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평균 제시 임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3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 분야별로 광업자원 분야의 제시 임금이 월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료 분야 296만원, 건설 분야 295만원, 안전관리 분야 291만원 등의 순이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 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응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았

다.

자격 취득자가 실제 받은 초임 중위임금은 등급별로 보면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43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능장(299만원), 산업기사(270만원), 기사(265만원), 기능사(222만원), 서비스 등급(215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위임금은 취업자들의 임금을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임금을 가리킨다.

직무 분야별로는 광업자원 분야의 초임 중위임금이 월 3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관리(290만원), 화학(280만원), 재료(275만원), 기계(26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종목별(취업인원 50인 이상)로는 기사 등급에서는 콘크리트기사가 월 4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업기사 등급은 가스산업기사 316만원, 기능사는 제선기능사 314만원, 서비스는 비서2급 233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9~34세)에서는 금속재료기사와 제강기능사로 340만원이었으며 중장년층(35~54세)은 건설안전기사 371만원, 고령층(55세 이상)은 건축기사 398만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득자는 42만명이었으며 이중 17만3천명(41.2%)이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윤리준범위, 청렴윤리위로 확대 개편

청렴업무 의사결정 기능 추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은 “기존 윤리준범위를 청렴윤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윤리경영 가치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앞서 지난 23일 한전은 “2025년 제1차 윤리준범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윤리준범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 강화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김동철 한전 사장과 내부 경영진 5명, 외부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리준범위원회에서는 부패 취약분야 진단, 청렴수준 평가 등 청렴업무와 관련된 의사결

정 기능을 추가해 ‘청렴윤리위원회’로의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2025년 내부통제 종합추진계획”과 ‘윤리경영 종합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조직 내 리스크 예방 및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전력망 적기 확충, 신기술·신산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회원사 경영애로·제도 개선 과제’ 발굴

6월 13일까지 전 회원사 대상 조사…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회원사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과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2500여개 상의 회원사와 지역 기업이다.

광주상의는 조사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제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광주상의는 조사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결과를 정리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정책 건의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회원사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획조사본부로 문의

하면 된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해 제도 개선 12건, 기업 지원 7건, 지역 현안 12건, 광주군 공항 이전 지원 활동 13건 등 총 44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한 결과, 18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7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5	18	20	30	35	3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179,946,063				24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210,471				94
3	5개 숫자일치	1,503,595				3,139
4	4개 숫자일치	50,000				163,678
5	3개 숫자일치	5,000				2,689,832